

The image features a white background with watercolor-style floral illustrations in the corners. The top-left and bottom-left corners show clusters of red and orange flowers with green leaves. The top-right and bottom-right corners also feature similar floral arrangements, including red and orange blossoms and green foliage. The central text is positioned between these decorative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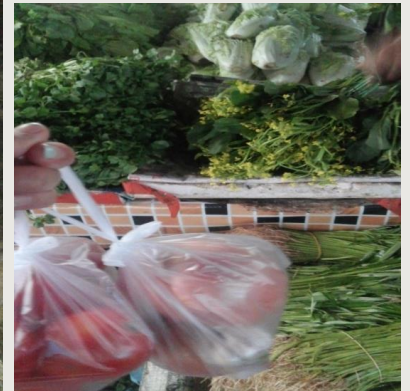
안녕, 푸딩땡

처음이자 마지막, 윤지의 '진짜' 푸딩땡 이야기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COOK ແຕ່ງກິນ

그 사람은 뭘 좋아하지?
어떻게 조리해야 더 건강하지?
요리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지만 사소하지 않은 정성.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나의 첫 요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말에 한식, 양식, 일식으로 메뉴를 구성하다가 본격적으로 매일 아침, 점심 식사를 책임지게 되면서 식구들의 입맛에 맞는 라오스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욕심을 바탕으로 마을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현지 음식을 배우고, 급기야는 요리 학원까지 등록하며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노력을 이어갔다.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요리,
반복된 요리는 때때로 나에게
의무처럼 다가오기도 했지만,
약간의 수고로움을 제외하고
서는 꽤 즐거운 일이었다.
한편, 나는 우리 마을의 슈퍼
스타이므로 마을 주민들과 나
의 일상을 나뉘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요리를 통해 그 필요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마을 주민
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각각의 집에 반찬과
편지를 나누어주다가 어느 정
도 친해지고 난 후부터는 직접
우리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
접했다.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기본적인 조림 및 볶음 요리, 죽순 국, 파파야 샐러드, 라임 청 등 수없이 많은 요리를 시도했다. 그 결과 나는 제법 라오스의 맛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요리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현지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음식으로 소통을 시도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단순히 그들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뿐 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애정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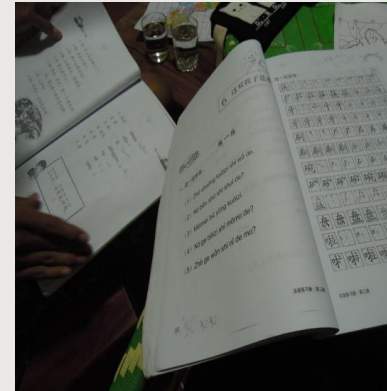


선생님?! 학생?! 딱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STUDY STYLE

라오스에서 나는 학생이자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에게 나는 동네 언니이며
같은 반 친구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면서 방과후 학교
선생님이기도 한 애매하고 신기한
사람이었다.



선생님?! 학생?! 딱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먼저 고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수업은 방과후 수업 월~목요일 5시~7시까지의 영어 A반, B반이었다.

하지만 라온아띠에 파견되기 전 내 목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최대한 나누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업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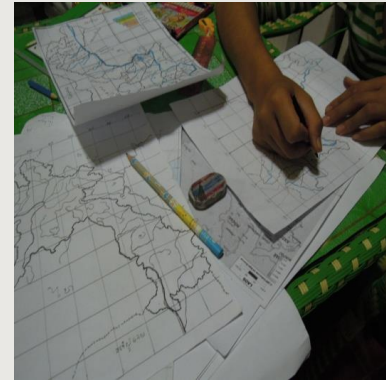
월~수요일에는 영어를 가르쳤고, 목요일에는 또 영어를 하고 싶으면 영어, 혹은 다른 선택지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고르면 거기에 맞춰 수업을 준비했다.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 고등학생~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선생님?! 학생?! 딱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방과후 학교의 매주 목요일 수업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기타 연주, 컴퓨터 등을 진행했다. 토요일에는 K-POP댄스를 가르쳤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화~목요일에 영어와 댄스 수업을 이어갔다. 방과후 학교 영어 A반은 단어, B반은 문법 위주로 수업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회화를 주로 다뤘다.

K-POP 수업은 초급 반은 소녀시대-Lion heart, 아이오아이-너무너무너무 등, 중급 반은 레드벨벳-러시안룰렛, 블랙핑크-불장난 등을 알려주었다.



선생님?! 학생?! 딱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나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행위가 봉사라기보다 놀이의 일부라고 느꼈다. 내가 더 나아가 그것을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워가기도 했다.

한편, 나는 박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입학해 라오어와 수학 등 라오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을 배웠다. 학교에 나가는 매일매일은 즐거웠다. 어렵게 허락을 받아 들어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시험도 보고 청소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은 일상의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았다.



일쟁이 파이 / 성실한 일 사냥꾼

HELP ခံစားနေရတာ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쪽
농사를 했고, 추가적으로 바닥
타일 공사도 도왔다. 오랜 시
간 걸린 농사와 공사로 인해
건강이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 명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최
선을 다했다. 일해 부듯했다.



슈퍼스타 딱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PLAY ຫວິນ

어디를 가봤니?
누구와 놀았니?
하고 물어본다면 어디서부터
대답을 해야 할까.
락오스에서 나는 참 많은 곳을
갔고, 많은 이와 함께 했다.





슈퍼스타 락담 / 동네 번쩍 서에 번쩍

술.
락오스는 술을 빼놓을 수가 없다. 별의 별 축제나 행사도 많았지만,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붙잡을 때가 아주 많다.
나 역시 꽤 자주 술을 준비해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농사를 하다가 손을 다쳐서 일주일 동안 반드시 금주를 하라고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술을 마셨다.
술을 잘 마신다는 소문이 나서 점점 더 찾는 곳이 많아졌다. 1월에는 축제까지 겹쳐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슈퍼스타 따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제나 행사라 함은 12월 31일의 몽 축제, 1월 한 달 간의 크무 축제, 2월 3일의 라오룸 축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바시들, 결혼식, 보트 경주 등을 말한다. 우리 마을에서는 1월 13일에 크무 축제를 열었고, 가는 데만 4시간을 들여서 다른 마을의 크무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친구들 생일 파티에도 많이 참석했고, 12월에는 막내 리카, 2월에는 일곱째 피앙 생일이어서 직접 생일을 챙겨줬다. 내 생일은 따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들이 깜짝 이벤트로 챙겨줘서 무척 놀라기도 했다.





슈퍼스타 락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처음에는 지나친 간섭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가족을 아끼
는 마음으로 나를 걱정하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
졌다. 또한, 나의 안녕을 기원
하는 바시에 울타리 밖까지 줄
지어 우리 집에 방문한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느꼈다.
아니, 락오스에서 지내는 하루
하루, 매 순간 순간이 그런 기
분을 들게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참 고마운 락
온아띠였다.



♡ 고마웠어, 푸던 댕 🏠

ຂອບໃຈ

ຍຸນຈີ, ໄກ ສຸນິພອນ, ຕາດໍາ



A photograph of a man standing in a lush garden next to a white house. The man is wearing a white t-shirt and patterned pants, smiling at the camera. He is positioned behind a concrete planter box. The garden is filled with various green plants, including a large tree with broad leaves and a smaller tree with thin branches. The house has a traditional tiled roof and a white wall. The background shows a hilly landscape under a clear sky.

5개월간의 위양싸마이

5개월간 함께 했던 가족소개

할머니



눈물이 많으신 할머니
배려가 많으시고 정이 많으심

엄마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타적인 어머니

아빠



무뚝뚝하시지만
정이 많으시고 친절한 아버지

첫째



겉은 차가워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첫째 동생

둘째



전형적인 상남자
의리있는 다이나믹한
동생

셋째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동생, 끝없는 장난으로
인해 가끔 짜증을 내지만
장난이 그림다

넷째



부지런하고 섬세한 동생
웃음을 보면 상대방 마저
웃음을 갖게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막내



막내동생,
아직 어린 부분도 있지만
다재다능하며 착한 동생

짧은 시간 동안 행복&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



짧은 시간 동안 행복&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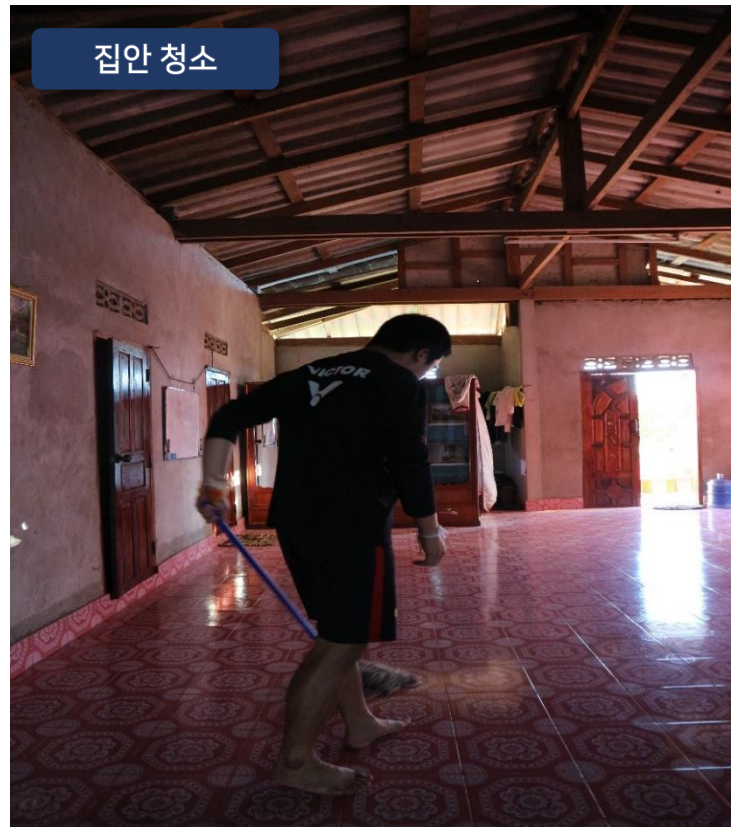
위양싸마이에서의 소소한 일상



텃밭 가꾸기



낮잠 자기



집안 청소

위양싸마이에서의 소소한 일상

요리하기



동네 친구들과 운동



술 마시기



위앙싸마이에서의 소소한 일상

소소한 여행



결혼식 참여



물고기 잡기



■ 근래에 수업보다는 놀이, 춤, 그림 그리기 위주로 센터를 운영 위앙싸마이 센터



■ 근래에 수업보다는 놀이, 춤, 그림 그리기 위주로 센터를 운영 위앙싸마이 센터



이웃들과 함께 한 수확



한 해 동안 부모님께서 '관심', '기다림' 사랑 등을 주셨던 것을 알기에 수확만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수작업이어서 시일이 꽤 걸렸지만 이웃들과의 정도 많이 지켜본 시간이었다.

돌아갈 때 받은 바시



이웃, 친구 바시에 기원만 드리다가
막상 집에 갈 때가 되어 바시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면서도 감사하다.



나를 발견하는 곳 '라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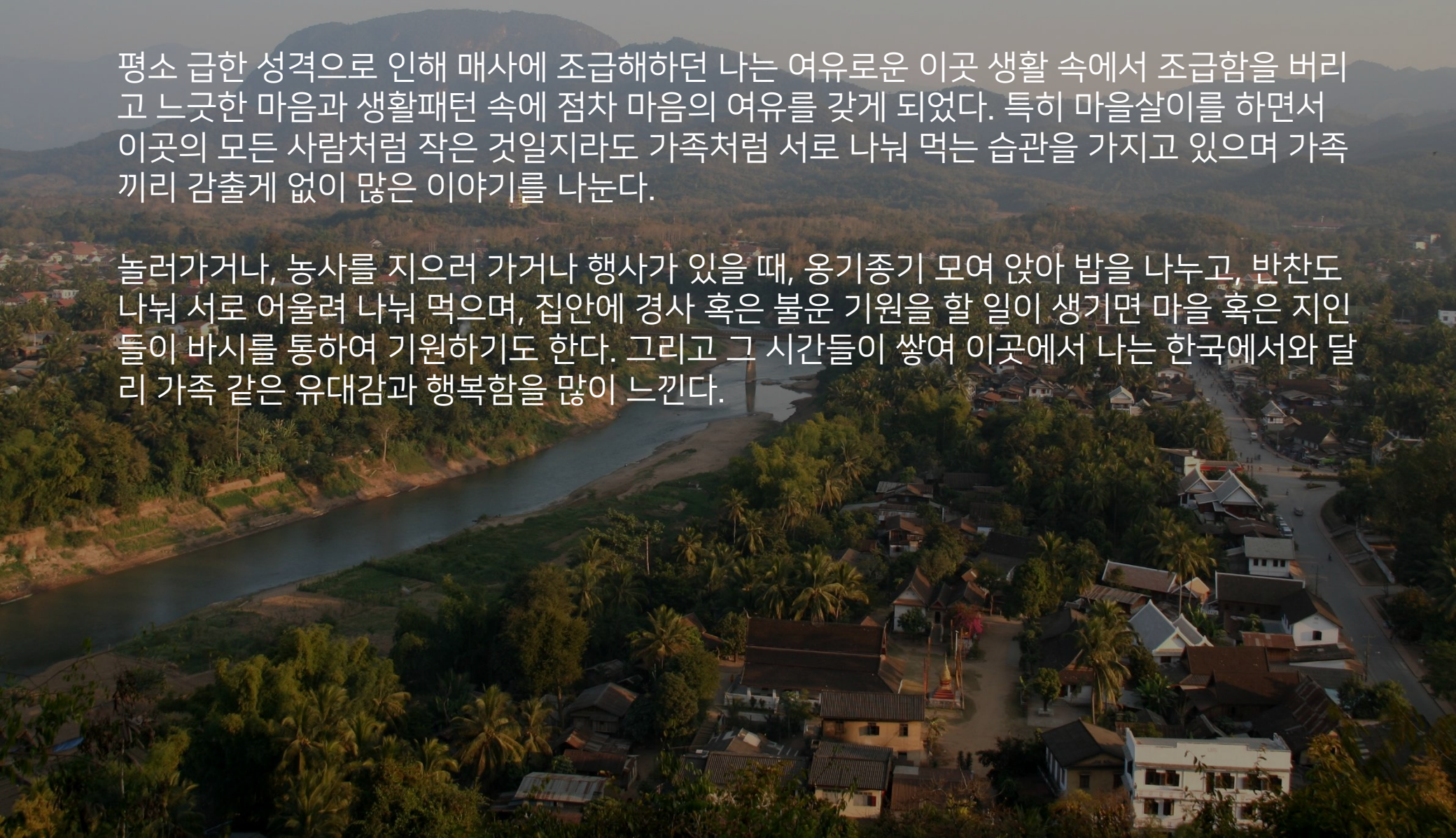
직접 라오스 생활을 경험하기 전, 내게 라오스는 '못 사는 나라', '생소한 나라' 라는 인식이 강했었다. 당연히 한국이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에 배우러 간다고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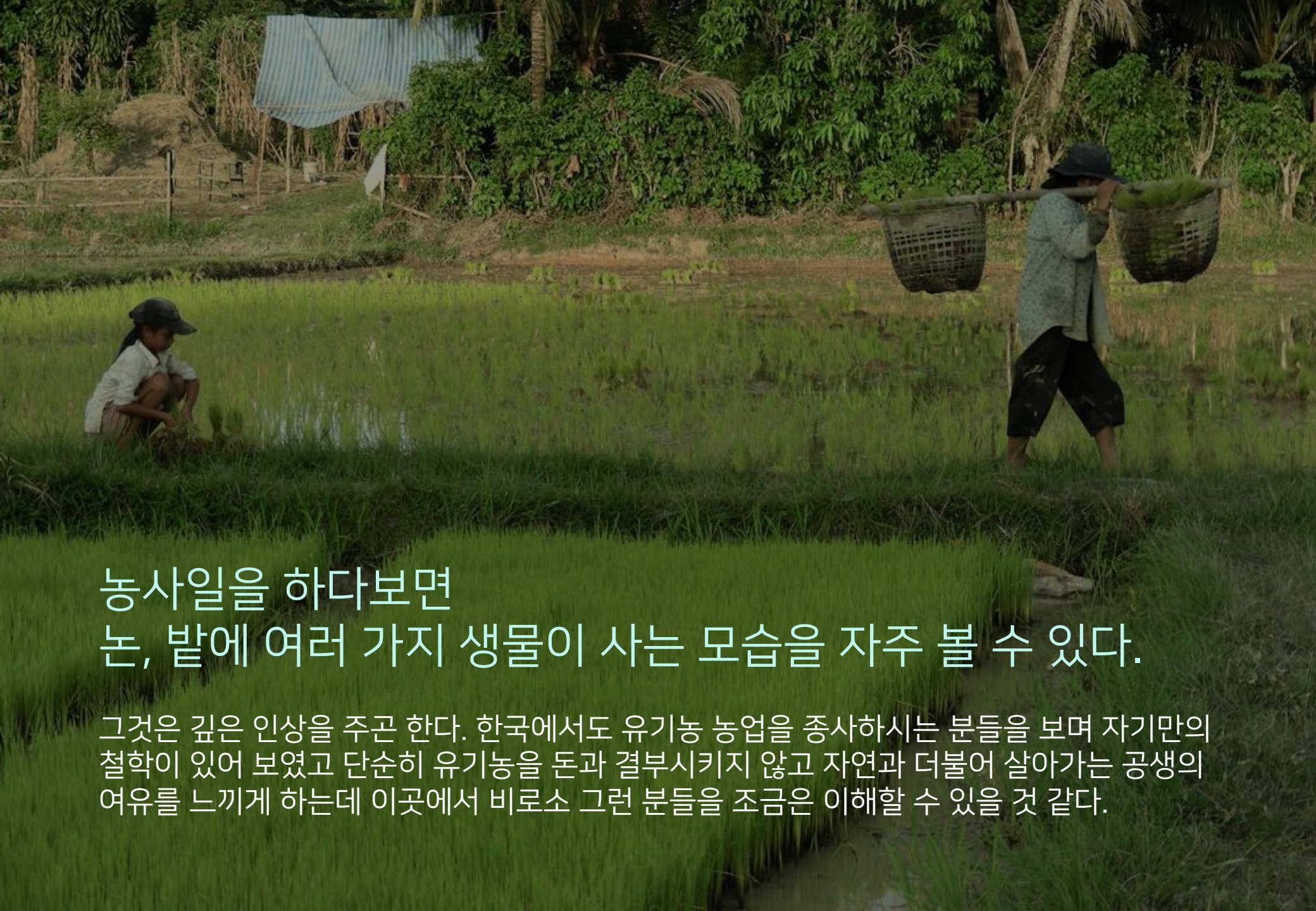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편견이 그렇듯 직접 느끼고 경험한 이후 나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다.

라오스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넘쳤다.

평소 급한 성격으로 인해 매사에 조급해하던 나는 여유로운 이곳 생활 속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느긋한 마음과 생활패턴 속에 점차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특히 마을살이를 하면서 이곳의 모든 사람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가족처럼 서로 나눠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끼리 감출게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놀러가거나, 농사를 지으러 가거나 행사가 있을 때,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나누고, 반찬도 나눠 서로 어울려 나눠 먹으며, 집안에 경사 혹은 불운 기원을 할 일이 생기면 마을 혹은 지인들이 바시를 통하여 기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이곳에서 나는 한국에서와 달리 가족 같은 유대감과 행복함을 많이 느낀다.





농사일을 하다보면
논, 밭에 여러 가지 생물이 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것은 깊은 인상을 주곤 한다. 한국에서도 유기농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보였고 단순히 유기농을 돈과 결부시키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데 이곳에서 비로소 그런 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A photograph showing three people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on a dirt path. They are wearing backpacks and casual hiking gear. The path leads towards a small village with a few houses, including one with a blue corrugated metal roof. In the background, there are large, steep, forested mountains under a blue sky with some clouds. Power lines are visible in the upper left corner. The overall scene is peaceful and scenic.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여유, 가족, 마을,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많은 생명들을 보며 이곳에서의 느낀 많은 느낌과 공감은 '진정한 행복'의 감정을 깨닫게 하였다.

‘나케’에서의 5개월



라온아띠 16기



미키라오스팀 귀국보고회

2월19일(일) 오후 4시 @아산YMCA



초대합니다♡

아산에서 3주동안 훈련을 받고

라오스로 떠났던

다희, 윤지, 재만, 일현이가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때론 뜨겁기도 차갑기도, 때론 미지근했던

5개월간의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격려하러 와주세요~!

보고싶은 사람들과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D

‘동서남북’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

“ 라오스 생활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였어요?”

의사소통의 불편함

화장지가 없는

온수가 없는 화장실의 불편함

음식의 불편함

날씨의 불편함

불편함

내 삶

“라오스 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예요?”





라오스의

교육은?

가족은?

사람들은?

고맙습니다.